

#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서의 기관의 역할

## -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차 성 란(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적인 운영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이후 최근의 연구들이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오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살기좋은마을의 한 유형으로 주민주도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다른 마을유형과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돌봄의 공유라는 가족친화문화조성, 나아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인간회복과 지속가능한 삶의 유지라는 가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장활동 및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가족돌봄이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되는 환경, 가족욕구가 충족되는 시설과 공간,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삶터만들기, 사람만들기, 공동체만들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이 담보되려면 주민 스스로가 동네의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참여하는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경험과 정보, 네트워크 능력 등이 부족하며, 이에 기관이 주민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업개시 및 진행을 촉진,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연구는 마을만들기 모델, 효과적 전략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단계별로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2차적 문헌자료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차성란(2010)의 연구에 제시된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중 동기화, 체계화, 참여와 실천의 3단계 모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차적으로 문헌자료 중 단계별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2차적으로 동일한 활동 범주 구분하는 유목화를 하였다. 동일 범주에 포함된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를 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국토'에 실린 사례 총 44건 중 주민주도적인 사례,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 37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은 마을만들기 동기화 단계에서 직접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는 제안자 역할, 또는 개인에 의해 동기화된 상태에서 협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요구조사, 관심끌기, 마을만들기의 방향 설정 등을 필요로 할 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정보수집 및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주민주도를 이끌어갈 의사결정 합의체인 주민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행정적 규제가 장애물이 될 때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사업추진에 필요한 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외부자원을 개발하는 자원조달자 역할을 담당한다.

여섯째,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기획 및 아이디어 제공, 토론 및 회의 능력개발을 위한 개입, 계속되는 자극을 제공하는 촉진자 등 사업운영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일곱째, 마을만들기의 주체적 활동을 담당할 리더 및 활동가를 발굴 또는 교육시키는 인력양성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담당자가 단계별 활동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 시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둘째,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친화마을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확보되어 가족돌봄과 가정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가정관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핵심적인 기관역할 요소를 보완하고, 사업추진 예정에 있는 기관 담당자가 참고로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